

다. M은 번역으로 생계를 꾸리며 글을 쓰는 작가인 모양이었다. 번역물에 장난스런 비밀 표식을 남기는 기벽이 있는. 그런데 미모의 루비 여인은 왜 M의 술값을 대신 계산하고 집까지 따라갔을까? 그의 누추한 옥탑방을 애련한 눈길로 바라보는 그녀, 정체는 뭘까? 정체가 뭐든, 부럽다.

오후 10시 51분. 스크린의 글자들은 눈 덮인 허허벌판에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 같았다. 누구의 흔적인지,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 수 없는…… 검지를 곳곳이 세워 백스페이스키를 눌렀다. 커서가 지나온 길을 맹렬히 달려 글자들을 지워나갔다. 스크린은 이내 아무도 밟지 않은 희푸른 설원으로 변했다.

옥상으로 나와 새도복싱으로 몸을 풀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나의 현란한 원투 스트레이트와 어퍼컷이 보이지 않는 챔피언을 향해 작렬했다. 하지만 채 1라운드를 버티지 못하고 다리가 풀려버렸다. 챔피언의 레프트 카운터 한 방에 녹다운. 윈, 운동 좀 해야지. 내장을 드러낸 벨벳 소파에 걸터앉아 숨을 골랐다. 밤하늘에는 자를 대고 정확히 자른 것 같은 반달이 걸려 있었다. 달은 나머지 반쪽의 빛을 흡수해버린 것처럼.

뇌종양과 동맥경화, 어느 쪽이 더 견딜 만할까? 글을 쓰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암세포처럼 꾸역꾸역 자라나는 이물질이 두개골을 터뜨려버릴 기세고, 글을 쓰면 혈전처럼 엉겨 붙은 문장들이 혈관을 막

아버린다. 무엇을 쓰고 있는 걸까, M은? 포도송이처럼 매달린 아카시아 하얀 꽃뭉음이 바람에 고개를 내저었다. 휘황한 달빛 때문에 녀석의 그림자도 한밤중까지 내 작은 방을 움켜잡고 있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밤의 아카시아 향기를.

*

그녀와 M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달의 여신과 옥탑방. 이 희극적인 부조화가 M은 각자가 부담스럽기도 했다. 흑이 악타이온처럼 험한 꼴을 당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그녀는 첫날부터 M의 트렁크 팬티에 목이 늘어난 반팔 티셔츠를 걸치고 제 집 안방인 양 뒹굴었다. 분위기만으로 금단의 신전을 쌓았던 맥주홀에서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없었다. 집이 마음에 든다는 게 빈말이 아니었던지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밤낮없이 침대 스프링이 비명을 지르고 등판에 오션지가 새겨지는 격정적인 동거는 아니었다. 두 사람은 첫날밤 꼭 한 번, 그것도 격식은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암묵적인 분위기에 떠밀려 차분한 섹스를 나누었을 뿐이다. 그리고 곧바로 깊은 꽃잠에 빠져들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인 것처럼, 그녀와 M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애꿎은 에르메스 원피스만 만원 버스 같은 옷장에 처박혀 팔자에 없는 생고생을 했다.

조금만 잘못 놀려도 특, 부러질 것 같았거든요. 한겨울 바깥 마른 나뭇가지처럼. 스크린 가득 펼쳐진 희푸른 설원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첫 문장은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렸죠. '바뀌어버렸죠'는 나름 신중하게 선택한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백지 위에 오롯이 떠 있던 그 문장을 과연 내가 직접 썼는지, 아닌지…… 지금도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첫 문장이 바뀌면서 이 소설은 당초 구상보다 꽤 길어졌답니다. 꽤 많이. 아무려나,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끝이니깐요.

1

예전에 지하철 무가지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오십대 중년 부부가 일요일 오후 집에서 빈대떡을 부쳐 먹으며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주말과 다를 것 없는 한갓진 풍경이었겠죠. 그런데 채널 선택권을 놓고 작은 다툼이 벌어졌어요. 남편은 야구 중계를 보자, 부인은 드라마를 봐야 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이 여편네가, 지금 코리안시리즈 7차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 채널을 돌려! 만날 하는 그놈의 야구, 이번 주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클라이맥스에 어제 못 봤잖아요! 그 사소한 실랑이가 감정싸움으로 번졌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핫김에 먹고 있던 빈대떡을 부인의 얼굴에 뱉다 던졌죠. 아무 말도 없이 부스스 일어난 부인은, 1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회면 귀퉁이에 쓸쓸한 농담처럼 소개된 이 기사를 접하면서 문득 그런 의문이 들더군요. 만일 남편이 던진 게 빈대떡이 아니라 좀 더 세련된 이미지를 가진 주전부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색이 고운 한과라거나 앙증맞게 장식된 컵케이크 같은 것. 그랬다면 이 사건은 소형 가전제품 몇 개가 날아다니는 부부싸움 정도로 마무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콩교롭게도, 그때 먹고 있던 것은 빈대떡이었죠. 이름부터가 불쾌한 기생충을 연상시키거니와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부쳐 먹는다는 웅색한 이미지의 균음식. 남편의 잇자국이 찍힌 기름기 번들번들한 빈대떡을 얼굴에 맞는 순간, 오랜 세월 부인이 가슴속에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팽! 터졌는지도 모릅니다. 빈대떡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 차고 넘치는 게 우연이란 놈이에요. 별로 놀리울 것도 낭만적일 것도 없는. 그걸 알면서도 우연적 사건이라면 빈대떡에까지 의미를 부여해 이름을 붙이고 싶은 유혹은 또 어쩔 수가 없죠. 운명이나 계시 같은 다소 부담스러운 이름부터 징조, 저주, 업보, 천벌, 징크스, 머피의 법칙, 샬리의 법칙, 신의 주사위, 움 붙은 재수 등등. 어쨌거나 우리네 인생에는 드라마가 필요한 법이니깐.

제가 그 책을 발견한 것과 21일 동안 장님으로 지낸 일 사이에도 별다른 연관성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연달아 일어났다는 것밖에

우리 시대의 죽음

—죽음에 이르는 공포, 절망, 그리고 폭력

정여울(문학평론가)

오직 공포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만이, 신이 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 『악령』 중에서

1. 영원히 끝나지 않는 미스터리소설

스포일러 없는 비평이 가능할까. 최제훈의 『일곱 개의 고양이 눈』을 읽으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 작품이 즐거움에 대한 어떤 스포일러도 없는 평론을 써보고 싶다는, 불가능한 열망이었다. 독자가 직접 이 소설을 읽기 전에는 그 어떤 사전 정보도 유출시켜서는 안 될 것만 같았다. 그만큼 이 작가의 스토리텔링은 강력하다. 독자에게 어떤 타인의 리뷰나 해설도 미리 엿보지 말고, 아무런 마음의 사

전 준비 없이 무작정 읽어달라고 하고 싶은 소설. 이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의 비밀은 단지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의 경쾌한 모자이크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소설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감수성의 탄생이다. 최제훈은 이 작품을 통해 모두가 주인공이면서도 모두가 서로에게 주변인물인, 독특한 인물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작가는 사건이나 캐릭터의 강렬함 자체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치밀하게 수많은 등장인물이 자아내는 다채로운 욕망의 네트워크를 추적한다. 『일곱 개의 고양이 눈』은 ‘우리 시대의 죽음’이라는 테마를 탐구하면서도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에 질식되지 않는다.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고 경고하는 사이드미러처럼, 최제훈의 소설은 속삭인다. ‘죽음이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살인’과 ‘시체’를 키워드로 다루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그 대표 주자 중 하나는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던 미국드라마 <CSI> 시리즈였다. 10년 동안 이 드라마에서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던 변함없는 주인공은 ‘시체’다. 어떤 살인범이든 과학수사의 빈틈없는 추적으로 너끈히 잡아내는, 이 무소불위의 과학수사대는 ‘시체’를 과학적 분석을 넘어 예술적 관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CSI>뿐 아니라 살인을 다루는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들은 살인사건과 시체 해부 장면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정작 ‘죽음’ 자체는 타자화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 어